

日帝時代 農村文庫에 관한 研究*

金 南 碩**

〈목 차〉

- | | |
|----------------------|------------------|
| I. 서론 | 2. 재정 |
| II.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문고의 설치 | 3. 장서 |
| 1. 농촌진흥운동 | 4. 직원 |
| 2. 농촌문고 설치운동 | 5. 활동내용 |
| 3. 농촌문고의 설치현황 | IV. 농촌문고의 역사적 해석 |
| III. 농촌문고의 운영 및 활동내용 | V. 결론 |
| 1. 조직 | Abstract |

I. 서 론

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일관되게 행해온 정책은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화하기 위한 민족동화정책이 었다. 통치기간 동안 조선총독부가 수립한 정책과 활동은 식민지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치하는것이 중 심되는 업무였다. 일제는 한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교육을 비 롯한 집회, 출판등 한민족의 일이 담긴 민족적인 활동을 금하고, 심지어는 언 어사용에 까지 탄압을 자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이데올로기 를 주입시키기 위한 온갖 정책과 집행을 위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1920 년대 일제가 문화정책이란 미명하에 자행한 도서관정책도 당시 조선인에 의

* 본 연구는 1995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 민족계몽의 도서관활동을 탄압으로 지지하고, 관주도의 도서관활동을 전개하여 식민화를 위한 사회교화시설로 활용하였다.¹⁾

일제말기에 이르러서는 ‘조선농촌진흥운동’이라는 식민지 정책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는 일제말기에 항일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조선인의 사회안정책으로 실시한 운동이며, 또한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한 강구책이었다. 말하자면 전쟁수행에 필요한 조선인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그 당시 조선전체 인구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을 겨냥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농촌진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인 1935년에서 1937년 사이 3년간 조선내에 농촌문고 설립의 필요성과 설치, 운용에 대한 문헌이 일시에 쏟아지고, 농촌문고의 설립과 활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농촌진흥운동(1932. 7-1940. 12)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리라 유추된다. 이렇게 농촌문고는 외형적으로는 조선인들에 계몽적인 민족감정을 농촌문고설립으로 유도하여 농어촌의 민심을 일제 동화정책으로 순응하게 하고, 농촌문고의 실제활동은 일제의 식민화를 위한 교화기관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제가 조선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 특정기간에 설립된 농촌문고의 활동을 통한 일제의 식민화와 조선인에게 미친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농촌진흥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설립된 농촌문고가 조선농촌진흥운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농촌문고의 설립현황, 설립활동의 전개방법등을 살펴본다. 셋째, 농촌문고의 활동내용, 영향관계등을 분석하여 농촌문고의 역할에 대한 성격을 규명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지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金南碩,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大邱: 啓明大出版部, 1991.

첫째, 1932년에서 1940년까지 8년간 조선내에서 실시된 조선 농촌진흥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며, 이 운동의 의미, 중심사상과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둘째,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농촌문고와 조선농촌진흥운동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셋째, 농촌문고의 설립현황, 설립취지, 조직, 재정, 장서, 직원 그리고 농촌문고가 전개한 활동등을 알아본다. 넷째, 위의 내용등을 토대로 농촌문고가 그 당시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근거로 일제시대에 설립된 농촌문고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한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시점의 연구이고, 농촌문고의 활동을 분석하여 농촌문고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신문기사’, ‘통계자료’, ‘관보’, ‘법령’, ‘행정자료’, ‘연감’ 등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촌문고의 성격 분석을 위하여는 앞의 사실자료(事實資料)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 사고에 의해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근거로한 기술적연구(記述的研究)의 성격과 논리적사고(論理的思考)를 기초로한 규범적연구(規範的研究)의 성격을 가진다.

Ⅱ.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문고의 설치

1. 농촌진흥운동

농촌진흥운동은 농촌갱생운동²⁾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조선의 최말단 행정조직인 농산어촌지역의 식민화를 위한 통치말기의 정책강화운동이다. 농촌문고활동은 농촌진흥운동과 그 정책적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농

2) 농촌갱생운동이란 용어는 농촌진흥운동과 같은 개념으로 일제 총독부의 정책사안에 따라 ‘농촌진흥’ 또는 ‘농촌갱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촌진흥운동의 정책과 실천과정을 알아 보는 것이 농촌문고활동의 성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농촌진흥운동에 대하여 富田晶子は 농촌을 조직화하고 그 구성원인 개인의 농가명세서를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농민의 체제심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³⁾고 하고, 池秀傑은 사회주의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농민운동을 저지하고 포섭하려는 것으로써 체제안정화 정책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파악한다. 이것을 위해서 총독부는 지주권을 재강화하여 부락민을 통제했다고 한다.⁴⁾

조선농촌진흥운동은 1932년7월부터 1940년12월 국민총동원령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조선총독부 주도의 관제농민운동⁵⁾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본격적인 전개는 1933년3월7일에서 1936년8월까지 宇垣總督의 재임기간이 그 절정기였다.⁶⁾

1930년대초반 일본을 휩쓴 경제공황에 영향을 받은 조선의 농촌경제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930년이후 농촌의 폐폐가 극심해 지자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정치세력확장운동인 농촌계몽운동이 점차 활기를 더해갔고,⁷⁾ 또한 만주사변의 결과로 대륙침략전쟁의 거점으로 조선의 재편성이 절실하였다. 이렇게 조선농어촌내부에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이 극에 달하자 총독부는 체제안정책의 마련이 불가피하였다. 당시의 조선총독인 宇垣總督으로써는 이러한 당면한 여러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입안하게 된 것이 농촌진흥운동이다.⁸⁾

3) 박섭, “식민지조선에 있어서 193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연구: 「農村振興運動」과 「朝鮮農地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장시원 외. 서울: 열음사, 1988. p. 113.

4) 韓道鉉,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학원. 1989. p. 33.

5) 蔡鴻錫, 農村更生의 基點. 浦項: 啓興社, 1935. pp. 248-252.

6) 朴起緒, “植民地地下의 農村振興運動.” 産研論叢(경희대산업관계연구소), 제3집(1978. 11). p. 43.

7)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1933年版. p. 68을 池秀傑, “1932-35年間の 朝鮮農地振興運動,” 韓國史研究, 46. p. 124에서 인용.

8) 朴起緒, 전제서. p. 36.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7월 宇垣總督이 도지사회의석상에서 「농산어촌의 진흥, 자력갱생의 실시계획」을 발표하고⁹⁾ 운동의 취지와 방침을 밝힘과 함께 시작된다.¹⁰⁾ 총독이 표명화한 내용은 ‘진흥운동’, ‘조선의 융화’, ‘악사상의 시정’, ‘노사의 협조’, ‘경제의 갱생’, ‘생활의 안정 내지 갱생’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입안전개된 시책이었다.¹¹⁾ 1933년3월 정무총감 今井田清徳의 이름으로 「농가경제갱생계획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요강¹²⁾과 목표를 지시하였다.¹³⁾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1933년부터 1934년까지 불과 2년여만에 5,110개부락, 농가 12만호에 실제적인 갱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할 정도로 까지 되었다.

농촌진흥운동의 기본적인 사상은 심전개발과 농본사상이 었다. 진흥운동에서 중점을 둔 「심전개발」과 「정신작용」의 슬로건은 언제 저항의 불길에 휘말릴지 모르는 조선인의 「心田」을 「天皇의 濶子」로서 황국시민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것이 었다.¹⁴⁾ 진흥운동의 사상 중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농본주의 었다. 조선농촌의 참상은 자본주의 악영향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악영향을 막고 농촌본래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농촌진흥운동의 제일 큰 의의라고 말하고 있다.¹⁵⁾

이 정책은 농업공황으로 파탄에 빠진 농촌의 부흥재건이란 미명아래 소위 「농촌진흥운동」이란 명제로 전개한 자력갱생을 통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전개한 조선지배체제의 재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일제가 수행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9)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서울: 청아출판사, 1986. p. 336.

小早川九郎 編, 朝鮮農業發達史. 政策篇. 京城: 朝鮮農會, 1944. p. 670

10) 小早川九郎 編, 상계서.

11) 池秀傑, 전개서. p. 128.

12) 「농가경제갱생계획 실시요강」 1. 지도부락설치계획의 수립. 2. 지도 부락의 선정. 3. 현황조사의 시행. 4. 농가갱생계획의 수립. 5. 갱생 계획의 실행.

13) 상계서

14) 朴起緒, “植民地下의 農村振興運動,” 産研論叢(경희대산업관계연구소), 제3집(1978. 11). p. 40.

15) 상계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농민의 노동력을 최대화 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으려 하는 것이 었다. 둘째, 한국인을 대륙침략정책에 동원,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이 내 세운 선전적인 제언은 농업공황으로 기아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조선농민을 구제하고, 해외로의 유망을 저지하여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실은 한국민의 인력동원과 물자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착취를 위한 것이 었다. 셋째, 노동시간의 연장이 었다. 조선은 경지가 좁으면서도 농법은 매우 조방적이며, 곡식만을 재배하고, 11월에서 3월까지 얼음이 어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잉여의 노동력을 최대화 하자는 것이었다.¹⁶⁾ 넷째,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농본사상을 주입시키고, 정신력을 개발하여, 개개 호호를 대상으로 영농기술을 지도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중견인물의 양성이 었다. 1930년대의 「전원총동원」정책과 함께 총독부통치의 지주가 될 수 있는 중견인물을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육성시킴을 밝히고, 중견인물로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을 택하였다.¹⁷⁾ 중견인물물 양성이 위해 총독부는 졸업생 지도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농민훈련소, 농도강습소(農道講習所), 단기강습회 등을 병용해서 단기간에 많은 중견인물을 양성하여 이들을 정책의 활동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¹⁸⁾ 총독부는 이들 중견인을 동원하여 식민지정책의 하부조직과 부락사이에 매개자가 되게 하여 총독부정책이 조선인에 의해 직접 행해지게 하므로 조선인을 총독부정책체제내로 직접 끌어들이었다.

이렇게 농촌진흥운동은 농민 스스로가 궁핍으로 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력갱생’과 이를 보조하기 위해 총독부가 마련한 각종시책을 표면에 내세우고, 이면에는 조선인의 마음에 고조되고 있는 민족적인 저항의식을 일제가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心田開發’과 ‘정신자흥’으로 ‘天皇의 赤字’로

16) 自力更生彙報. 第5號. p. 12.

17) 박섭, 전개서.

18) 金南頌,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에 관한 研究(博士論文). 1990. p. 19.

서 ‘皇國臣民’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농촌진흥운동을 위한 조직은 지도와 유기적 통제와 강화¹⁹⁾를 위한 방편으로 중앙에 조선총독부농촌진흥위원회를 두고, 지역에는 도농촌진흥위원회, 군도(郡島)농촌진흥위원회,²⁰⁾ 읍면농촌진흥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조직은 계통적인 조직으로 골간을 이루고 진흥계획의 실제적인 실행은 도농촌진흥위원회의 위원인 관계과장을 중심으로 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은 총독부관리과 직접 생산자층을 농정의 대상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또다른 하나는 부락을 단위로 하는 부락조직사업이다. 이는 부락을 단위로 한 실행조합조직으로 표면으로는 인조상불하여 향려공영의 실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사업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부락단위의 통제조직의 강화책으로 농민통제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²¹⁾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처럼 농촌진흥운동은 철저하게 관주도로 시행된 일제 식민지 정책의 도를 더하는 재무장의 정책이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여건상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선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활동이었다. 농촌진흥정책이 발표되어 실천기간동안에는 조선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진흥운동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농촌문고도 도서관이 할 수 있는 농촌진흥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 농촌문고의 설치운동

일제통치시기중 조선총독부가 조선농촌진흥운동을 가장활발히 전개하였던

19) “農山魚村振興ニ關スル件”, 1932年10月8日 農第157號. 朝鮮總督府 農村振興課 編, 朝鮮農村振興關係例規, 1939. p. 4.

20) 군도농촌진흥위원회는 군도각계주임, 면행정 및 근업사무담임주임, 군속 및 도속, 산업기술원, 경찰서장, 군청소재지금융조합이사, 군청소재 공립초등학교장 및 공립실업학교장, 지방의 정황에 따른 지방유식자, 군청소재지의 상업단체 또는 수리조합의 이사, 교화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1) 池秀傑, 전거서. p. 134.

시기에 편승해서 도서관계에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농촌문고운동이 짧은기간동안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농촌갱생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1935년에서 1937년 사이 3년간 조선내에서는 농촌문고(농촌도서관)의 설립운동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치와 활동에 관한 문헌과 논문, 논설 등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李在郁은 1935년 <農村圖書館의 經營法>²²⁾이라는 단행본을 발행하였고, 경성부립도서관의 姜辰國은 “農村事業을 附帶한 農村文庫 創立이 急務”라는 제목으로 東亞日報에 9회(1936. 2. 27-1936. 3. 11), “農村文庫建設의 急務”라는 제목으로 <朝鮮之圖書館>, 제5권 제6호(1936. 12)-제6권 제1호(1937. 7)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그후 “農村文庫經營論 : 그 必要와 方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東亞日報에 24회(1937. 10. 8-1937. 12. 8)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農村文庫에 備置할 農村指導圖書”란 제목으로 東亞日報에 3회(1937. 12. 5-12. 12)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들 자료에 제시된 농촌문고 설치의 필요성을 보면 전술한 농촌갱생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장인 菽山秀雄은 <農村圖書館의 經營法> 서문에서 농촌도서관은 농촌진흥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농촌도서관의 사명은 일제식민지정책의 心田開發을 위해 중차대한 기관임을 역설하고 있다.

“...半島의 當面問題이고 緊要課題인 自力更生, 心田開發運動은 이제 白熱化하여 官民上下가 一致團結하여 이에 進進하는 此際에 있어서 精神上的의 食糧이요 知識의 源泉인 圖書館의 使命은 一層重大大라 하겠다”²³⁾

李在郁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농촌문고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회교육은 일제의 교화운동의 범위에서 행해진 운동이란 점에서 본다면 농촌문고운동 역시 조선인이 주도한 일제의 조선인 식민화를 위한 교화운동

22) 李在郁 編, 農村圖書館의 經營法. 京城: 漢成圖書株式會社, 1935.

23) 李在郁 編. 農村圖書館의 經營法. 상계서. 序에서 당시 朝鮮總督府圖書館長 菽山秀雄이 쓴 내용이다.

이었다.

“圖書館事業은 社會教育上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인즉, 朝鮮農村振興의 基礎工作이라 할 수 있는 農村圖書館은 특히 朝鮮에 있어서는 絶對的의 必要性과 緊急性을 가졌음을 確信하는 바이다.”²⁴⁾

당시 每日申報에서는 農村文庫設置을 교회시설의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咸興道當局에서는…教化施設擴張에 努力하고 있던바 最近農民向學熱을 고치려는 同時 農村振興組合에서는 道當局의 指導에 의하여 巡迴農村文庫를 설치하리라는데…”²⁵⁾

이러한 일련의 농촌문고설립에 관한 운동은 그 당시 총독부에서 실시한 조선농촌진흥운동(1932. 7-1940. 12)²⁶⁾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宇垣總督은 1933년7월24일자 일기에서 사회주의세력의 발효를 막기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정책시설’의 필요함을 강요하고²⁷⁾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정책시설’이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교화적 성격을 가진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도 사회교화시설로 중요한 정책시설이었다. 이와 같이 총독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점차 지방으로 확대된 운동으로서 농촌문고는 도서관을 수집보존하여 열람의 요구에 응하게 하고 문화전달(일본문화보급 필자주)의 장소로서 지방교육의 보조기관으로 국민지도의 동력이 되게 한다,²⁸⁾고 하고, 특히 일제의 총독부가 조성금까지 지급하여 장려한 활동²⁹⁾이다.

24) 삼개서. 序文 p. 1 ; p. 3.

25) 每日申報. 1936. 1. 19. 4면. “農村啓蒙爲하야 農村文庫設置”

26) 池秀傑, “1932-35年間の 朝鮮農村振興運動 ; 植民地 ‘體制維持政策’으로서의 機能에 關하여,” 韓國史研究(韓國 史研究會), 제46호(1984). p. 117.

27) 「宇垣一成日記 II」1933. 7. 24. p. 909.

28) 姜辰國, “農村文庫建設の急務(一).” 朝鮮之圖書館, 제5권, 제6호(1936. 12). p. 8.

29) 東亞日報, 1938. 5. 26. 8면.

농촌문고는 농촌진흥운동과 같이 표면상으로는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총독부도서관과 경성부립도서관 현직에 종사하는 조선인이 주동이 되어 농촌문고 설립의 필요성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이재육의 저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선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은 去益積極化하여 가는 셈이며, 그 운동의 효과가 去益顯著하여 가는 것은 우리 농촌을 위하여 慶賀할 바임은 물론이요, 도시인 역시 충분히 관심할 바이다. 그러면 다 각기 관심하여야 할 농촌진흥운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그 지도의 중임을 담당할 자는 누구인가. 그 원동력은 문명타파인 것이요 그 지도의 역할을 담당할 자는 地方有志諸氏이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全朝鮮的으로 농촌도서관운동열을 고무하여 일반에게 특히 농촌도서관의 가치는 바 사명을 충분히 인식시켜 그 건설발전을 촉진함에 있다고 하겠다.”³⁰⁾

또한 이재육은 그의 서문에서 도서관사업의 부진에 대한 원인이 일반유지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 지적하고 농촌도서관의 창설과 발전에 일반유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농촌진흥운동에서 각 지방의 중견인을 동원하여 식민지정책의 하부조직과 부락사이의 매개자가 되게 하여 총독부정책이 조선인에 의해 직접 행해지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인을 총독부정책 범위내로 끌어 들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일고 있던 경제난으로 인한 반일감정을 무마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문고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운동의 실천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제는 외형적으로 농촌문고를 조선인들의 주도로 태기된 민족 계몽적인 운동으로 나타내게 하여 지방유지의 기부금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므로 최소의 경비로 전국적인 시설을 확보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농촌문고를 정책의 범주내에

30) 李在郁 編. 전계서. p. 1.

서 농촌교육을 주안으로 하는 상설 항구적 문화기관³¹⁾으로 발전시키므로 농어촌지역에 교화기관으로 정착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농촌문고는 일제의 통치말기에 나타난 도서관활동으로 조선인들에 의해서 설립되고 관에 의해서 주도된 활동이다. 이는 일제초기와 중기에 나타난 조선인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적 차원의 도서관활동과 일본의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일본인과 관주도의 교화적 차원의 도서관활동간에 갈등차원에서 본다면, 농촌문고활동은 조선인의 계몽에 대한 민족의식을 도서관설립활동으로 끌어 드리고, 이들의 활동을 정책범위내로 제한 하므로 식민화를 위한 교화의 목적을 성취시킨 기관이라 하겠다. 그래서 조선인 관리에 의해 문고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이 주도되고, 지역의 유지와 청년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관주도로 활동한 교화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제시기 나타난 다른 도서관 활동간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농촌문고의 설치현황

농촌문고의 설치는 조선의 전농어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28,394정동리(町洞里) 중에서 비교적 교육시설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정(町)과 동(洞)을 제외한 23,000개 내지 25,000개의 동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2-3동리에 1개의 문고를 설치³²⁾하게 함으로 최소한 8,000내지 10,000개의 문고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³³⁾ 그래서 전국이 농촌문고의 조직과 영향권에 있게한 것 이었다. 이러한 문고의 설치는 일제가 구상한 가장 강력한 지

31) 姜辰國, “農村文庫建設의 急務(一).” 전게서 pp. 7-8.

32) “學校가 없는 더우기 簡易學校의 惠澤도 업지못하는 相接한 2. 3個 農村部落을 한 單位로 하여 그 중 한 곳에 農村文庫를 創設할 것이다”(東亞日報, 1936. 2. 29. 4면)

33) “農村文庫는 당시 朝鮮의 28,394개(소화10년12월현재)町洞里중에 교육시설혜택이 비교적 가능한 町洞을 제외한 23,000내지 25,000농촌 里洞을 그 대상으로 하여 農村簡易文庫는 최소한도로 8. 000내지 10,000개가 있어야 2동내지 3동에 한개가 될수 있다”(東亞日報, 1936. 2. 29. 4면)

역단위의 최말단의 조직이기 때문에 문고를 통한 교화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실현하는 마무리운동이라고 볼수도 있다.

농촌문고가 실제로 활동한 현황을 자료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농촌문고현황

문고명	설립자	소재지
抱川農村文庫	李松準	京畿抱川郡 蘇屹面 松陽里
山幕農村文庫	南相弼	京畿長서郡 江上面 九化里
竹林農村文庫	千冀鎬	全北高歙郡 茂長面 月林里 ³⁴⁾
會陸農村文庫	皮鴻漸	咸南高原郡 上山面 會陸里
文發農村文庫	洪鎭國	平南大同郡 古平面 文發里
磨星更生文庫	田植	平北宜川郡 深川面 磨星里
秀松農村文庫	金春秀	平北龍川郡 楊下面 秀松洞
大川農村文庫	大川靑年團	慶南金海郡 龜浦面 大川里 ³⁵⁾
金內里農村圖書館	崔錫洙	全南求禮郡 金內里 ³⁶⁾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문고가 확인되었는데 설립자는 모두 조선인이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행정단위의 최말단의 조직인 리나洞 단위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농촌문고운동은 비교적 성공적이 었다. 상 기표에 나타난 8개 문고 이외에도 농촌순회문고를 도별로 설치하여 운영하 기도 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도당국이 주관해서 8개소(함흥 1, 영평 1, 정평 4, 이원 1, 신홍 1)³⁷⁾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리와洞 을 단위로 한 최말단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문헌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고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34) “竹林農村文庫設立,” 朝鮮之圖書館, 第6卷, 第2號 (1937. 12), p. 43.

35) 東亞日報, 1938. 5. 26. 8면.

36) 姜辰國, “農村文庫의 急務(二),” 전계서. p. 37.

37) 每日申報, 1936. 9. 19. 4면.

또한 전술한 이재옥의 저서에서 밝힌 바처럼 농촌문고의 재정적인 지원을 지방유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립자는 정책으로 유도된 지방유지들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일제말기 조선인에 의해 일제의 교화시설이 설립될 만큼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시골에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일제의 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일제말기에 이들이 계획한 대로 농촌문고가 설립되어 그들이 기대하는 교화기능을 발휘하였다면 일제의 통치시기에 나타난 어떤 교화시설보다도 가장 강력한 활동이 전개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야기된 교화적인 효과가 한민족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농촌문고의 운영 및 활동내용

1. 조 직

문고활동을 위한 조직은 경성에 중앙본부를 두고, 중앙본부에 중앙지도원을 각도에 1인 내지 2인을 두어 도단위를 순회지도케 하였다.³⁸⁾ 그리고 각군에는 1개씩 전국에 219개의 지부기관을 두었다.³⁹⁾ 또한 각 문고에는 주임과 조수 그리고 소사 등 2-3명의 직원을 두었으며, 직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지방의 공사유력인사와 유지계세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⁴⁰⁾하여 문고활동에 지방의 유력인사가 모두 참여하게 하는 기관으로 조

38) 姜辰國, “農村文庫建設の急務(二).” 전게서 제6권, 제1호(1937. 7). p. 37.

39) “이들의 統制와 管理機關으로서는 中央에 一個, 各部에 一個式 卽 二百十九個所의 支部와 一個所의 中央本部가 있어 그 運用과 方法에 不斷의 連絡을 取할 것이다.”(東亞日報, 1936. 2. 29. 4면)

40) “農村振興의 原動力은... 文旨打破이것이요, 그 指導의 役割을 擔當 할 者는 地方有志諸氏이다.”(李在郁 編. 전게서 p. 1)

직하였다.⁴¹⁾ 외형적으로는 한국인에 의한 자발적인 시설로 설립되게 하였지만 문고의 운용과 방법은 중앙본부의 정책에 따라 통제된 종적인 교화기관으로 활동하는 조직이었다.

중앙기관의 주된 임무⁴²⁾는 첫째, 문고에 보급할 도서간행의 관장, 둘째, 도서의 수입과 배포등 도서선택에 대한 지도, 셋째, 농업용기기 및 부업용기기의 제작과 수입사무 관장, 넷째, 소비조합용 상품인 비료, 일용품, 식량 등의 입수와 제작배포, 다섯째, 부업지도, 즉 부업의 소개와 지도업무와 동시에 종자, 종묘, 종축분양, 여섯째, 적당한 인사를 파견하여 지방문고를 순회지도, 독려하는 등이 었다.⁴³⁾ 이렇게 농촌문고는 그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물품을 중앙기관으로 부터 공급받거나 지시에 따라야 했고, 문고의 운영도 상위기관의 지도요원들에 의한 지도에 따라야 했다.

중앙본부에서는 문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공급, 소비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의 제조, 공급 또한 순회지도요원 파견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운용이 설립을 유도한 지방유지의 참여와 문고지도자의 책임하에 경영하는 것과는 달리 철저한 중앙 통제하에서 행해지게 하였다. 농촌문고는 당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의 통제를 위한 시설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일체의 정책이 조선인에 자발적인 행위로 위장된 산물임을 알수 있다. 문고운영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은 철저하게 중앙 통제하에 있게 하였고, 문고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자료에서 부터 소비조합의 비품 및 농기구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중앙에서 생산 보급하게 하였으며, 1개도(道)에 1명 내지 2명⁴⁴⁾의 지도요원을 두어 수시점검 하게 하였다.

지도원의 자격은 전문학교졸업정도로 되어 있으나 여의치 못할 때에는 중

41) 李在郁 編. 전계서 p. 30.

42) 姜辰國, “農村文庫建設の總務(二).” 전계서 p. 35

43) 東亞日報, 1936. 3. 4. 4면.

44) “지도요원은 최소한 1도에 1명은 있어야 하고, 교통이 불편한 함경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등지에는 1도에 2명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원수는 15명 내지 20명이 있어야 했다.”(東亞日報, 1936. 3. 4. 4면)

등교육정도라도 교화에 대한 각오와 지조가 있는 자로 선택되어 필요한 훈련을 받은 자⁴⁵⁾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고의 지도자는 농촌문고라는 시설을 통해 일제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농촌문고는 일제가 조선인을 식민화하기 위한 정책시설로 철저한 조직하에 운영한 교화시설임을 알 수 있다.

2. 재 정

농촌문고를 위한 재정보조는 지방유지의 기부금과 국고보조로 하였다. 그 당시 신문지상에서 농촌문고의 재정문제에 대하여

“또 이사업의 성질이 총독부의 농립국과 학무국의 양자에 관련되니 만치 이 양 당국으로 부터 원조와 보조를 얻을수 도 있는 일이며 또 활용할 곳이 없어 잠재우고 있는 전조선향교의 불용재산의 이용도 가능할 지니 그리하여 5. 6백만의 자금을 얻을수 있으면 이 사업의 획일적시설은 완전히 실행할 수 있으나...”⁴⁶⁾

고 제안하였으며, 실제 농촌문고의 수입예상부⁴⁷⁾에도 “농구사용비 : 200원, 소비조합이익금 : 50원, 부업지도, 배종 기타 기구사용에의 수입 : 100원, 지방유지 기부 기타잡수입 : 100원, 보조비 : 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보조비가 전체 농촌문고 수입의 5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는 지방간의 문고설치에 대한 보조 및 장려금 형식으로 문고자체의 활동정도에 따라 일제의 정책에 부합된 우수문고에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는 보조라기 보다는 지역의 문고설치에 경쟁적인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장려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유지의 기부금에 의존하게 한 것은 기부금을 통하여 지방유지들

45) 東亞日報, 1936. 3. 4. 4면.

46) 東亞日報, 1936. 3. 4. 4면.

47) 姜辰國, “農村文庫建設の急務(二),” 전거서 p. 28.

을 문고설치에 직접 참여하게 하므로 보다 많은 지방유지들이 농촌문고 설치에 가담케 하여 많은 지방민이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설립, 유지되게 함으로 일제는 재정부담없이 정책입안만으로 전국을 농촌문고라는 교화시설조직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고, 당시 고조되고 있었던 반일감정과 농어촌의 기피현상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고의 시설유지를 위해 당시 민족교육자본이던 향교재산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이의 이자수입으로 문고를 운용하게 하므로 항구적인 시설로 정착되게 하는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일정한 기금을 세워놓고 그 이자를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제일 항구성이 있어 도중에서 폐관의 비운에 빠지는 일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각지의 향교재산은 가장효과적인 재원이라하겠다.”⁴⁸⁾

이렇게 일제는 순수 민족자본을 문고설치에 끌어들이어 그들의 농촌진흥운동의 거점시설로 문고시설을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설치와 운용에 대한 별도의 부담없이 농촌문고라는 명제하나로 교화와 식민화를 기하는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었다.

3. 장 서

농촌문고의 자료는 중앙기관에서 생산되었거나 선정된 자료로 하였다. 수집방법은 구입과 기증이 었지만 실제로는 기증에 주로 의존하였다. 기증은 유지의 저서나 독지가의 수집품으로 하였다.

농촌문고에서 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하여

“도서수집은 도서관상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수집에는 어떠한 방도가 없지 못할 것이다. 즉 구입, 기증, 보관전환의 방법이 있으나, 조선농촌도서관에 있

48) 李在郁 編, 살계서, p. 30.

어서는 주로 구입, 기증이 보편수단일 것인 즉, 구입은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자유선택으로(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기증은 유지의 저서나 혹은 독지가의 다년간 전력을 다하여 수집한 회구서 無代로 입수...⁴⁹⁾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문고의 최소경비예산⁵⁰⁾을 보면 도서비가 다른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촌문고에서 자료수집은 실제 구입 보다는 기증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수집방법이 구입에 의한 것이든, 기증에 의한 것이든 도서의 내용⁵¹⁾은

- 1) 산업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실체에 관한 것.
- 2) 과학사상의 보급에 관한 것.
- 3) 경제사상, 정치시국, 세계대세에 관한 것.
- 4) 자치적정신을 길르는데 유익한 것.
- 5) 순수한 독서취미를 육성할 수 있는 것.
- 6) 연습용, 독학용, 자습용에 관한 서적.
- 7) 일상생활, 가정의 교양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농촌문고의 지도교과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指導教科書는 農漁村生活에 實即한 教材를 採擇하여 00使用할 것이니 例하면 農漁界의 名稱과 그 使用에 關聯된教材라든지 肥料의 名稱과 使用方法에 依한 土地改良의 教材를採擇함이라든지 山林保護에 關한 現在와 將來問題를 取扱한 教材라든지 農村經濟와 그 開發策을 敎示한 教材라든지 이런 등의 教材를 採擇하여 實踐敎育의 結果를 나타낼 것이다.”⁵²⁾

49) 李在郁 編, 상계서. p. 17.

50) 건물 400원, 도서비 100원, 서가 30원, 열람탁자 20원, 교육반시설비 60원, 소비조합 전용품사입자금 300원, 농공기구 : 감종발동비 500원, 울종발동비 200원 부업지도용, 배종, 양종 기타시설비 150원, 의약품시설비 40원, (朝鮮之圖書館, 第6卷, 第7號(1937. 7), p. 25)

51) 東亞日報, 1937. 11. 16. 6면.

52) 東亞日報, 1936. 3. 1. 4면.

이와 같이 일제는 농촌문고를 통하여 부업지도와 농촌개발등에 대한 지도를 집중하여 농촌청년을 포함한 농촌인의 도시망상이나 허영, 불로소득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오직 생산활동에 매진하게 하는 정신적인 개조기관으로 활동하게 하고,⁵³⁾ 한편으로는 농기구를 공동이용하게 함으로 보다 많은 농산물을 포함한 물자생산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일제가 선정한 문고에 비치하고자 하는 자료list를 보면

“농촌문고에 비치할 농촌지도도서 : 농업일반(어업) ; 농업기초과학, 농술 : 토양, 비료학 ; 육종, 종묘, 품종개량 ; 경종학, 경작재배 ; 실용농예전서 ; 농업제도 ; 토지개량, 경지정리 ; 작물병해, 구제법 ; 농촌약제학 ; 농촌기구, 농산물이용제조법 ; 부업일반, 부업문제 및 지도 ; 야채, 약초재배 ; 과수재배 ; 조원, 화분재배 ; 양축, 수의학 ; 양수 ; 양봉, 양잠 ; 부업생산물가공, 이용, 제조법 ; 소설 : 역사전기류 등”⁵⁴⁾

이들 도서 전부가 일본인에 의해 저술된 일본어로 된 자료이고, 주로 농어촌의 부업이나 기술서 위주로 되어 있으며,⁵⁵⁾ 그외의 것은 일제의 식민지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양서와 언어를 보급하기 위한 어학서가 일부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일제가 행한 농촌문고의 교재는 당시 일제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불안요소의 제거와 일제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조달에 필요한 실용자료를 보급하는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53) “또 農村文庫에 備置할 圖書는 主로 農産物에 관한 文典으로… 其外 青年修養에 關한 書籍이며 農村背景의 修養小說等으로서 農村青年에 都市妄想曲, 虛榮과 不老所得의 精氣는 排擊하여야 할 絶對禁物이오 崇勞踐遊의 精神思想을 培作發展하여야 할 것이다.”(東亞日報, 1936. 3. 1. 4면)

54) 東亞日報, 1937. 12. 5. 5면 ; 1937. 12. 7. 6면.

55) “農村에 대한 改良, 副業指導等等 農村開發에 適當한 圖書를 中心으로 具備케 할 것이며 此 備置할 圖書는 中央에서 簡易하게 譯出하고 或은 平易하게 移植하여 그들의 程度에 適0하게 出版할 것이다”(東亞日報, 1936. 2. 29. 4면)

4. 직 원

농촌문고활동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어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농촌문고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의 구성요건이다. 직원의 자격은 지방민으로 우량하고 진실한 청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지방민이 신뢰를 가지고 따를 수 있게 하며, 지도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그들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이었다. 직원의 기능은 각 단위부락의 지도자로서 교육에서부터 소비조합 운영에 이르기 까지 전체 권한을 부과하였고, 지역의 지도자 뿐 아니라 교화자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게 하였다.

“이 文庫에는 그 部落 혹은 그 地方에서 優良하고 眞0 한 靑年一名乃至二名을 選出하여 文庫의 管理와 運用을 一任하는 同時에 그 文庫가 背景한 單位部落의 指導者를 삼아 恒久的으로 部落兒童의 教育과 指導에 當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農村文庫는 部落의 中心目標가 되고 指導靑年은 部落開發의 動力이 되어 朝鮮農村的 文化開發을 오로지 이 指導者의 精神과 手腕에 매달리게 될것이다.”⁵⁶⁾

“館員은 率先讀書修養하여 農村大衆의 指導者가 되며, 先驅者가 되어 農村啓蒙에 獻身할 秘藏한 決心이 필요하다.”⁵⁷⁾

이렇게 직원구성에 크게 관심을 보인것은 지역인이 존경하는 인물로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교화의 거점적인 문고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조선인 스스로 집행하게 하기위한 것이 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2-3명⁵⁸⁾의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지도자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다.⁵⁹⁾

56) 東亞日報, 1936. 2. 29. 4면.

57) 李在郁 編. 전계서. p. 3.

58) “朝鮮農村圖書館에서는 館員은 三人可量이 제일 적당하다고 믿는다.”(李在郁 編. 전계서 p. 30)

59) “농촌문고의 지도자는 이상의 서술한 사업의 실지 운용자이며 실험자이다.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맺고 못맺음은 오로지 지도자의 수완과 그 경중에 매어달렸으니 소하여는 부락의 개발과 운명을 지배할 개척자이오 大하여는 조선의 문화와 그 발전을 담당할 책임자이니 그 직책이 중차대함이어.”(東亞日報, 1936. 3. 6. 4면)

직원의 조직과 자격은 중학교졸업정도의 주임 1명, 보통학교졸업정도의 조수 1명, 그리고 소사 1명으로 하되, 소도서관에서는 주임과 조수로만 운영되게 하였다.⁶⁰⁾ 그러나 이들 지도자는 일제가 필요로 하는 사전교육을 필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문고의 전국적인 조직에서 보면 중앙기관에서 정한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중앙의 지도요원, 각지방에 파견된 순회지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와 문고자체의 독자적인 행위가 용납될 수 없었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유지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설립되게 하고, 문고지도자도 지역의 청년으로 하고 있어 지역공동의 이익을 위한 자체적인 시설로 나타나고 있지만⁶¹⁾ 실제적인 운용에는 중앙기관의 통제하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조직이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일제의 정책을 주도하는 말단의 교직원으로 활동해야만 했다.

5. 활동내용

실제적인 문고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구체화 시켜 볼수 있다.

첫째, 농촌문고는 문고중심으로 주야학을 부설경영하였다.⁶²⁾ 주학에는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오전오후반을 분리하여 오전에는 문명퇴치반을 연령제한 없이 운영하고, 오후반에는 고급반으로하여 문고를 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1년을 졸업할 경우에는 보통학교 4. 5학년정도의 독서능력을 갖게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주학은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교육적인 활동 시설로 농촌문고를 통하여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문자해독교육을

60) 李在旭 編. 전계서 p. 30.

61) “이 관원을 감독지도하기 위하여 그 지방의 공사유력가 및 유지제씨를 위원으로 하는 유력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그 발전을 도모한다면 현하 조선농촌의 긴급당면문제인 문맹타파 농촌진흥운동에 기여하는 바 자못크다 하겠다.”(李在都 編, 전계서 p. 30.)

62) 東亞日報, 1936. 3. 1. 4면.

전개한 일종의 미니학교이다.

야학의 경영은 농부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사정에 의하여 부인야학을 경영하였다. 이들에게는 주로 문고의 접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야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맹퇴치에서부터 성인들의 여가를 보다 높은 생산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어촌에 필요한 부업지도와 기술교육 및 정신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야학에는 성인남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들이 필요한 활동을 전개 하였다.⁶³⁾ 특히 가족성원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인을 위한 야학을 설치하여 식민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농촌교육의 심도를 더해갔다.

둘째, 농촌문고에 소비조합을 부설하였다.⁶⁴⁾ 농촌문고내에 소비조합을 부설하여 지역의 생필품보급을 통한 생활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농어촌개발과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농기구를 공동으로 비치 활용하므로 농어촌의 경제불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저변에는 생활의 편리를 통한 농촌사회의 반일감정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구의 공동사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에 증대를 가져와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공급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정책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다.

비료등 농촌에 필요한 유용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실비로 배분하고, 기타 일용품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였다. 이 기관에 농촌의 필수품인 농구로써 개개인이 일일이 비치할 수 없는 농산개량에 관한 기구라든지 기타 간이한 수종의 기기를 비치하고 이것을 농민에게 대여하는 방법등을 통해 경제곤궁이 극심한 농어민에 대한 구조와 복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였다.⁶⁵⁾

63) 東亞日報, 1939. 10. 29. 3면. “成人男女無學文盲를 義務의으로 授業케”

64) 東亞日報, 1936. 3. 1. 4면.

65) “精神을 作興하고 心田을 開發함도 그 振興策의 一助가 아님은 아니나 出戰할 兵士에게 武器가 必要한 同0으로 그들에게 農具가 必要함은 더 말할것도 없는 일이다...우리 農村文庫는 이 事業을 가장 有意하게 또 奏功할려면 이 施設로 하여금 恒久的의 援助와 不斷한 指導를 잊지 못할 것이다.”(東亞日報, 1936. 3. 1. 4면)

소비조합을 통한 농촌경제의 개생운동도 역시 일제가 식민지화를 위한 목표가된 심전개발의 일조로 생각하였다.⁶⁶⁾

셋째, 농촌문고에서 행하는 교육내용은 어학과 기술교육 이었다. 자료의 내용은 문맹퇴치와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부업지도에 있었다. 문맹퇴치는 자기교육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언어습득에 두었기 때문에 주로 일본어 해득과 기초산수가 그 내용 이었다.⁶⁷⁾ 그리고 부업지도와 농산물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전생수행에 필요시 되는 물자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IV. 농촌문고의 역사적 해석

일제시대에 설립된 농촌문고를 역사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촌문고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헌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나에게 萬若힘이 있다면 農具利用과 農村所費組合機關을 附帶한 農村事業을 全朝鮮의으로 網羅하여 農民經濟를 援助하는 一方 文盲退治運動의 常設의機關이 되고 農村開發運動中心目標가 될 農村文庫를 創設하였으면...⁶⁸⁾

“初等教育就學不能의 主因이... 教育機關의 不備와 面積上으로 본 距離關係에 重大한 關心을 換起치 않을 수 없다”⁶⁹⁾

66) 삼계서.

67) “指導教育은 國語, 朝鮮語, 算術, 理科를 主로 하되 文盲退治를 主眼하여 二, 三年內에 普通學校卒業程度의 國語, 朝鮮語의 實力을 養成할 것이다.”(東亞日報, 1936. 2. 29. 4면)

68) 東亞日報, 1936. 2. 27. 4면.

69) 東亞日報, 1936. 2. 27. 4면.

“이에 農村中心의 常設의 文化教育機關이오 積極의 文盲退治運動機關이 되고 또 가장 簡易하고 效用이 클 農村文庫의 創設이 切實히 必要하고 또 急務한 것이다.”⁷⁰⁾

위의 역사적기록과 이미 앞에서 살펴본 농촌문고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농촌문고의 성격과 역할을 분석해 보면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농촌문고를 전조선농어촌부락에 건설 하난 것은 교육시설이 불충분한 조선의 현상을 타개하는 효과가 크다.”⁷¹⁾고 하고 있다. 이처럼 그 당시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최소단위의 교육시설로 농촌문고를 설치하고,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일제가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공급을 위한 노동력 확보와 총동원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였다. 일제가 설치 운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인을 황국신민화 하려는 의도와 특히 청년들의 구국을 위한 애국운동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촌문고의 자료를 통한 일본어 학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서적을 보급함으로써 서적을 통하여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여 천황의 적자로 고착시키고자 하였다.

둘째는 농촌경제갱생 활동기관으로서 역할이다. 당시 일제의 전쟁수행으로 인한 농촌의 경제불황은 그 도가 한계에 달하여 반일감정과 기피현상이 고조되고 있었다. 농촌문고는 농어촌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농촌경제를 갱생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농촌문고에 교육시설을 포함한 소비조합, 농구이용조합, 각종실험기관까지 부설하고 소비품의 보급과 농기구의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의 증대와 농어촌의 교화에 기하고자 하였다. 그야말로 농어촌의 생필품과 농기구의 공동이용동을 포함하는 항구적인 농촌개발기관으로 건설하여 농촌교화에 전념하게 한 것이다.

70) 東亞日報, 1936. 2. 29. 4면.

71) “鮮內農村文庫의 近況,” 朝鮮之圖書館, 第6卷, 第3號 (1938. 2), p. 55.

따라서 농촌문고는 비록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조선인의 독립을 위한 민족계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사회교화성격을 강하게 남긴 일제의 심전개발 정책수행을 위한 시설이었다. 농촌문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강진국도 “宇垣總督각하가 도서관을 사회교화의 도장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는 반드시 우리들이 의미하는 도서관의 사명과 같이 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앞의 말에 합세하는 어떠한 것도 기꺼히 받아드려야 하는 현상이다.”⁷²⁾라고 애석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촌문고는 일제에 의해서 조선인이 행한 농어촌에 침투한 사회교화시설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당시 일본에서 제기된 민간차원의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도서관활동이 조선반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사전에 관주도로 전개한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농촌문고를 설립하기 직전인 1920-1930년대 일본내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격심한 소작쟁이가 있었고 이때 일본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이 조합에서는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특히 교육활동을 중시하고 도서관 설립을 아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농민운동을 전개한 일본농민조합에는 노동자와 학생이 주축이 되었고, 많은 정치과제를 이슈로 격렬한 투쟁을 하였다. 바로 이런 격렬한 농민운동방침중에 도서관 및 순회문고에 관한 방침이 포함되어있던 것이다.⁷³⁾

그러므로 조선총독부는 일본내에서의 농민운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선에서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나름대로의 예방책을 강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른바 조선내에서 민중청년들이 구국운동을 위해 일본상황과는 달리 스스로 농촌문고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극히 우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국운동의 주축인 청년들의 항일운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역으로 조선인들의 사회교화시설로 농촌문고를 설립하여 활동하게 한

72) 茨辰國, “農村文庫建設の 急務(-)”, 전거서. pp. 11-12.

73) 小川 徹, “1920-1930年代の 農民運動と 圖書館”, 圖書館史研究, 第10號 (1993). pp. 1-24.

것으로 사료된다.

이른바 농촌문고는 외형적으로는 문맹퇴치와 농촌소비조합 등을 통한 전반적인 농촌생활을 위한 기구로 내세우면서 이 운동의 전개 저의는 일제 말기 농촌의 불경기로 일고 있었던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전쟁수행을 위한 총동원령과 필요한 물자공급을 위한 일제의 의도된 정책시설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그들의 지배집단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농촌문고를 이용한 것이다. 이른바 지배집단 이데올로기란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 지역권이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에서, 지배집단인 영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인도인 전체 민족에게 대국주의사상(大國主義思想)을 주입시키면서 노예의식을 부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는 천황제사상(天皇帝思想)을 주입시키는 동화정책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교육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조선인에게 전파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지배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학교시설을 설립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조선인이 학교교육을 받지못함을 인식하여 사회교육활동을 통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일제가 설립한 사회교육시설인 도서관을 통한 지배이데올로기 보급과 정당화는 조선인에게 세뇌적인 영향을 미쳐 조선인 스스로 농촌문고 설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일제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선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농촌문고 활동은 시민의 자주성에 의거한 지적자유를 신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한 사회교화기관으로 또는 전쟁수행을 위한 일제 주도의 농촌진흥운동의 최첨단의 거점시설이었다.

V. 결 론

농촌문고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정책으로 추진된 농촌진흥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는 식민화의 강화운동이다. 농촌진흥운동은 일제말기 전쟁수행으로 인한 조선 농어촌의 경제불황과 이로 인한 민심동요 및 반일감정의 고조를 무마하고, 새로운 식민지정책을 강구하여 국민총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내 세운 것이 농촌갱생운동이다. 농촌문고운동은 일제가 조선인의 계몽을 위한 민족감정을 도서관설립운동으로 끌어들이어 농촌진흥의 차원에서 식민화를 위한 교화기관으로 활용한 시설이었다.

농촌문고운동은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사회교화를 위한 중심장이었다. 농촌문고는 도서관 기능뿐 아니라 정규교육기관의 미설치지역에 문맹퇴치와 부업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소비조합을 부설하여 생필품공급과 생산도구인 농구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생산증대를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문고는 농촌갱생운동의 실제활동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조선인의 민족계몽에 대한 감정을 유발시켜 조선인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유도하고, 실제활동은 관주도로 운용한 시설이다. 그래서 문고운동의 전개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설치, 운용등에 중심되는 사항은 관립인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경성도서관에 근무하는 조선인 도서관인들이 주도하였고, 실제 농촌문고의 설립자는 한결같이 조선인들이었다. 문고의 직원은 지역에서 신망있고 유능한 청년으로 하였으며, 이들 직원은 문고의 지도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화를 위한 전반적인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다.

농촌문고의 조직은 전국적인 것으로 중앙본부와 도단위에 지부를 두고 중앙과 지부에 다수 지도원을 두어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였다. 개개 문고에는 지방 공사립의 지도자와 지방유지들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문고운용을

직접 지도감독하게 하였다. 농촌문고에 필요한 교재에서부터 비치자료는 중앙본부에서 발행, 배포, 수입까지 관장하고, 소비조합에서 필요한 생필품, 농구들도 중앙본부에서 제작, 구입보급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농촌문고의 실제적인 운용은 중앙본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집행기관에 불과한 일제의 교화시설이었다.

농촌문고는 일제가 교화운동을 전개하는 최말단 집행시설로 활용하여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일고 있었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문맹퇴치와 부업지도, 농업기술지도, 정신교육 등을 통해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수급과 물자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책기관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농촌문고는 조선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시민의 자주성에 의거한 지적자유를 신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교육기관이 되지 못하고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한 사회교화기관으로 또는 전쟁수행을 위한 농촌개생의 거점기관으로 역할하였다.

〈참 고 문 헌〉

- 姜辰國. “農村文庫建設의 急務.” 朝鮮之圖書館. 제5권, 제6호(1936. 1). pp. 2-40; 제6권, 제1호(1937. 7) pp. 8-49.
- 姜辰國. “農村文庫創設의 急務: 農村事業을 附帶한.” 東亞日報, 1936年 2月 27日-3月 11日.
- 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여(1-14).” 東亞日報, 1937年 10月 8日-12月 24日.
- 金南碩.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 大邱: 啓明大出版部, 1991.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서울: 청아출판사, 1986.
- 박기서. “식민지하의 농촌진흥운동.” 産研論叢(경희대산업관계연구소). 제3집 (1978. 11). pp. 35-46.
- 박 섭. “식민지조선에 있어서 193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서울: 열음사, 1988.

- 張在俊. “圖書館은 어떤 것?: 朝鮮의 圖書館現狀과 그 理解를 위하여.” 東亞日報, 1936年1月28日 - 1936年 2月 22日.
- 지수걸. “1932-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식민지 체제유지정책으로서의 기능에 관하여.” 韓國史研究(韓國史研究會), 제46호(1984), pp. 117-149.
- 蔡鴻錫. 農村更生の 基點. 浦項: 啓興社, 1935.
- 韓道鉉.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에 관한연구. 서울: 서울대 대학원, 1989. “農山漁村振興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2年10月8日 農第157號.
- 農村振興課 編. 朝鮮農村振興關係例規, 1939.
- “圖書館の新設.” 朝鮮事情(朝鮮銀行調查部). 1920年 11月. p. 62.
- “社會教育狀況.” 朝鮮事情(朝鮮銀行調查部). 1921年 9月. pp. 39-40.
- 小川 徹. “1920-30年代の農民運動と圖書館.” 圖書館史研究(圖書館史研究會), 第10號(1993). pp. 1-24.
- 小早川九郎 編. 朝鮮農業發達史: 政策篇. 京城: 朝鮮農會, 1944.
- 〈字垣一成日記 II〉 1933. 7. 24. p. 909.
- “竹林農村文庫設立.” 朝鮮之圖書館(朝鮮總督府圖書館). 제6권, 제2호 (1937. 12). p. 43.
- “鮮內農村文庫の 近況.” 朝鮮之圖書館. 제6권, 제3호(1938. 2). p. 55.
- “農村文庫에 비치할 農村指導圖書(上,中,下).” 東亞日報, 1937年 12月 5日, 12월 7일, 12월12일.
- “農村啓蒙爲하야 農村文庫設置.” 每日申報. 1936. 1. 19. 4면.

A Study of rural—mini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Kim, Nam—Seuk*

〈Abstract〉

The colony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Empire was, as a suppression on national salvation education of Korean, on the one hand it was liquidation of Korean national spirit and other hand, it has the object to Japanizing Koreans through cramming Japanese language and its cultu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libraries had two roles, one was to press Korean and its culture and the other was to civilize Koreans for Japaniz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rural—mini libraries whether the former or the latter. From 1932 to 1940, The Chosun Governor—General Department (Chosun Chongdokboo) actively spread "The Movement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rural—mini libraries in Korean rural and fishing community.

Under the colony of Japanese Empire, colony policy was itself very tough that Japanese Empire did their utmost ideas to win Korean culture over and Japanizing Korean with every possible pressures.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Since rural—mini libraries were planned by the chosun Governor—General Department, however, were established by Korean themselves with the property of local edcation center(Hyanggyo).

Therefore, rural—mini libraries were as facilities to promote rural economic development for providing Japanese with some materials which need to conduct a war, and to introduce local people to participute in civilizing activity themselves and farmers and fishermen were forced to group to be educated in Japanese language and its reading. Rural—mini libraries were, as it were, not as facilities for enlightening Korean peoples but as facilities for civilizing Koreans.